

제주어 ‘게’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고찰*

양 창 용** · 김 원 보***

(제주대학교)

Changyong Yang · Wonbo Kim, 2013. A study on the discourse functions of *key* in the Jeju language. *Language and Linguistics* 59, 143–164.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scourse functions of *key* in the Jeju language in general.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tries to provide an integral explanation on the seemingly syntactically-governed use of *key* from a discourse-functional perspective. Traditionally, *key* has been treated in two ways: sentence ending and emphatic particle. There, however, are no efforts made to provide some unified explanation to the physically separate use of *key*. Reflecting on traditional understanding, this study assumes that the use of *key* is pragmatically-controlled phenomenon in nature, suggesting that *key* has the core meaning around which derivational or secondary meaning are interpretively attached in a given discourse context. The core meaning of *key*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strategy of face-saving. Based on this core meaning, the various secondary meanings could be derived to properly get through the participants' intentions such as agreement, hold the floor, and sympathetic attitude.

Keywords: Discourse marker, face-saving, *key* in Jeju language, politeness, discourse functions of *key*

주 제 어: 제주어, 담화표시어 ‘게’, 공손법, ‘게’의 담화기능

1. 머리말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1-32A-A00081).

** 주저자

*** 교신저자

본 연구의 관심인 제주어가 표준어와 확연하게 다른 언어적 형태와 기능을 지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음성적, 형태적, 구조적, 의미, 담화, 사회적 측면에서 독자적인 언어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언어를 통해 표현되는 사회적 관계 또한 표준어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언어와는 확연하게 구별이 된다.¹⁾(이기문 1993, 강근보·현평호·김홍식 1974, 고재환 2011) 한편으로 제주어는 문헌으로 표기되어 전혀 내려오기보다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언중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하여 제주어에는 다양한 구어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상황맥락에 바탕을 둔 언어 사용과 상호작용적 구어의 본질을 살펴보는 것은 언어 연구에 큰 의의가 있는 일이라 하겠다.

제주어에 관한 이전 대부분의 연구들은 어휘, 형태적 분석을 통한 언어 형식과 구조적 본질을 규명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강근보 1972, 강영봉 1995, 강정희 2005, 고재환 2011, 현평호 1985) 이들 연구는 구조적 분석과 접근을 통해 제주어의 언어적 특징을 기술하고 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함으로써 제주어의 위상과 정체성을 밝히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음성, 음운학적으로 제주어만의 음성자질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혔고, 제주어 고유의 형태와 의미를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제주어가 하나의 독자적 언어적 체계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제주어 사전(2009)은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한 대표적인 산출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제주어에 대한 통사, 의미적 연구는 제주어 문장 구조 이해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강정희 1988, 성낙수 1992, 홍종립 1991) 또한 최근 연구에서 제주어의 담화, 기능적 특성을 밝히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담화, 기능적 접근은 구어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제주어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보다 풍부한 이해와 설명을 제공해 주고 있다.(문순덕 2005, Yang 2010) 이전의 형태, 구조적 접근이 언어 연구의 토대를 다졌다면, 담화, 기능적 접근은 제주어의 사용과 언어적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더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겠다.

1) 본 연구는 제주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통칭하기 위해 ‘제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제주지역에서 사용되는 언어가 그 나름의 언어적 독자성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에서도 제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연구자들 또한 제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언어적 독자성과 사회문화적 흐름을 반영하여 제주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본 연구는 전통적으로 이원적 구조, 즉 종결어미와 침사로 분석된 제주어 ‘게’의 쓰임에 대해 담화, 기능적 해석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의 전개를 위해 우선 ‘게’의 전통적 해석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게’의 구조적 쓰임과 의미적 양상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다음으로 ‘게’의 다양한 쓰임을 통합할 수 있는 ‘기본 의미(core meaning)’를 제안함으로써 ‘게’의 사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즉, 제주어 ‘게’의 기본 의미는 담화 기능에 일차적 바탕을 두고 있고, ‘게’의 다양한 쓰임과 기능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파생되는 언어 기능임을 전제할 것이다. 계속해서, 기존 연구에서 암시적으로 제시된 ‘게’의 화용적 쓰임, 즉 강제 침사에 대한 언어적 위상을 담화표시어로 규정 지어 그 언어적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다. 담화표시어로서 ‘게’의 언어적 기능은 상황 맥락적 언어 자료 분석을 통해 설명될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전통적으로 ‘게’의 쓰임과 관련된 언어적 역할이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기본 의미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게’의 구조적 쓰임

지금까지 ‘게’의 언어적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독립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전 연구에서 ‘게’에 쓰임 대한 이해는 종종 시도되었다. 다른 언어 표현과 더불어 설명되거나 비슷한 언어 기능을 갖는 표현들과 대조, 비교를 통해 제시되었다.(고재환 2011, 김지홍 2001, 문순덕 2005) 이들 연구는 ‘게’의 형태, 구조적 쓰임에 대한 기본적인 언어 기능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설명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사적 접근에서 ‘게’의 언어적 본질은 연결어미, 종결어미 혹은 강제 침사로 규정 되었다. 즉, 구조적으로 ‘게’는 문장의 끝에 오는 동사에 붙는 경우가 빈번한 데, 이로 인해 ‘게’는 문장 종결어미라 불려진다. 또 ‘게’가 독립적으로 다양한 어형에 붙어 해당 어형의 의미적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침사라 명명되기도 하였다. ‘게’의 쓰임에 대한 통합적 설명을 제공하기에 앞서 ‘게’의 통사적 쓰임과 의미적 해석에 대한 이전 연구를 살펴보자.

2.1. 종결어미

종결어미는 말이나 문장을 끝맺을 때 사용하는 언어 형식이다. 특히 이 용어는 문어체의 기본 단위가 되는 문장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문법 단위이다. 문장의 종류에 따라 그 종결어미 형태는 달라지고, 문장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름으로 불린다. 평서문에 쓰이면 평서형종결어미, 의문문에 쓰이면 의문형종결어미, 명령문에 쓰이면 명령형종결어미 그 밖에 청유형종결어미, 감탄형종결어미 등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제주어 종결어미 또한 그 문장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재환 2011)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또한 통사적으로 종결어미로 분류되는데, 그 형식을 살펴보자.

(1) 평서형종결어미

- ㄱ. 정연이 노쁘게 솥안게양
(방패연이 높게 솥던데요)
- ㄴ. 저술엔 입생기가 다 털어지언게양
(겨울에는 잎사귀가 다 떨어지던데요)
- ㄷ. 집이 널찍허연게양
(집은 널찍하던데요)

(고재환 2011:48)

고재환(2011:48)은 위의 예에서 사용된 ‘게’의 통사적 성격에 대해 “지난 일을 회상하는 연결어미 ‘-안/-언/-연(던데)’에 ‘-게’가 종결어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게’ 종결어미에 강세첨사 ‘양’이 붙는 형태의 구조이다.

(2) 청유형종결어미

- ㄱ. 더 놀당 가게
(더 놀다가 가자)
- ㄴ. 그만 놀양 이젠 일허게
(그만 놀고 이제는 일하자)
- ㄷ. 그 떡달이랑 허나씩 갈랑 먹게게
(그 떡들이랑 하니씩 갈라서 먹자야)
- ㄹ. 느만이라도 허엿이라
(너만이라도 하엿거라)

ㄱ. 느만이라도 흐엏이라게
(너만이라도 하엏거라야)

(고재환 2011)

청유형 종결어미는 '게'의 대표적인 통사적 쓰임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는 다 음에 살펴볼 첨사와 달리 동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를 이룬다. 통사적으로 비존대 종결어미로 사용되어 문장의 형태를 결정짓는 역할을 한다. 의미적으로 는 듣는 이에게 무엇을 권유하는 청유의 내용을 포함한다. (2ㄷ)과 (2ㄱ)의 예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 명령형 어말어미 '-라'와는 달리 청유형 종결어미 '게' 는 청자의 동의를 구하여 반응을 이끌어 내어 매끄러운 의사소통을 유지하려는 전략이다. '-라'의 명령형에 첨사 '게'가 붙으면 권유의 의미적 속성이 덧붙여지 는 것은 '게'의 담화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우연한 일은 아니다.

2.2. 첨사

첨사는 명제적 의미(어떤 뜻을 더하기 위하여 붙이는 말, 표준국어대사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말이나 문장에 더해지는 덧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제 의미 전달에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형태, 구조적 접근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의 담화 연구에서 이와 같은 첨사들은 의사소통에 필수적이고,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상호 작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Savignon 1997, Olshtain and Celce-Murcia 2001) 본 연구의 대상인 '게' 또한 첨사로 널리 인식되어 오고 있다. 강세 첨사 '게'에 대해 고재환(2011:57)은 “제주어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인데, 체언, 감탄사, 연결어미, 종결어미에 두루 붙어서 현대국어의 '야/요'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첨사로 사용되는 '게'의 언어 구조적 환경을 살펴 보자.

(3) 평서문 + 게

- ㄱ. 연장 놓앗단 디가 그디다
(연장을 놓았던 테가 거기다)
- ㄷ. 연장 놓앗단 디가 그디다게
(연장을 놓았던 테가 거기다야)

- ㄴ. 저게 우리 밧갈쉐우다
(저것이 우리 황습니다요)
- ㄴ'. 저게 우리 밧갈쉐우다게
(저것이 우리 황습니다요)
- ㄷ. 그날은 브름이 워낙 췌게 불엇입주
(그날은 바람이 워낙 췌게 불엇습니다요)
- ㄷ'. 그날은 브름이 워낙 췌게 불엇입주게
(그날은 바람이 워낙 췌게 불엇습니다요)

(3ㄱ, ㄴ, ㄷ)은 ‘게’가 붙기 전 평서문으로, 평서문의 특성상 단정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게’가 붙음으로써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욱 부드러워짐으로써 화용적 의미가 부가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확대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미적 영역을 벗어나 이 평서문이 쓰이는 주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3ㄱ')의 경우 원래 문장 ‘연장을 거기에 놓았다’는 단정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게’가 첨부된 문장은 ‘연장이 어떻게 된 걸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등과 같은 문맥상 파생 의미를 더하게 된다. 이러한 화용적 파생 의미는 상대방과 상호 작용을 위한 관심 표현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비슷한 설명이 나머지 예 (3ㄴ')과 (3ㄷ')에도 적용된다.

(4) 의문문 + 게

- ㄱ. 나가 가민 가의도 가가 게?
(내가 가면 개도 갈 수 있지 (않겠니)?)
- ㄴ. 그거 알양 무시 거 헐디 게?
(그건 알아서 뭐 하겠니?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의문문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심적 태도를 반영한다. 청자에게 요구하는 반응의 정도에 따라 의문문의 형태도 변화한다. 예를 들어, 직접 의문문은 간접 의문문에 비해 보다 화자에게 보다 단정적 반응을 요구하는 형태이므로 화자에게 더 큰 심적 부담을 주게 된다. 위에 제시된 (4)의 예문들은 ‘-카?’와 ‘-디?’로 끝나는 의문형 어미에 ‘게’가 첨부된 문장들이다. 의문 종결어미 ‘-카?’는 단순히 진의 여부를 묻고, ‘-디?’는 화자의 단정적 감정을 의문문의 형태로 전달한다. 이들 어미에 첨부된 ‘게’는 화자의 심적 부담감을 덜어 주는 느낌을 전달한다. 표준어 해석에서 보는 것처럼 ‘게’의 사용은 ‘않겠니?’ ‘그럴 필요

는 없을 것 같은데' 정도의 어감을 과생시키고 있다.

(5) 감탄사 + 게

- ㄱ. 저게! 스실은 그게 아니라마씀?
(저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요)
- ㄴ. 아이고게! 어떠한 경 돼불언고양?
(아이고, 이를 어쩌나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그럴 수 없는데..)

위의 예문들은 단순 감탄의 표현 '저'와 '아이고'에 '게'가 첨부된 형태이다. 이들 감정의 표현은 다음에 이어지는 발화가 자기 옹호(5ㄱ), 혹은 측은한 마음의 상태(5ㄴ)에 대한 의미 내용 전달에 앞서 나타나고 있다. 화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어색한 느낌의 의미를 완화하기 위해 이들 감탄 표현을 발화 앞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들 감탄 표현에 첨부된 '게'의 사용은 완화의 느낌을 더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듣는 이의 동조 내지 공감, 즉 상대방의 이해를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예문의 끝에 붙은 '마씀'과 '양' 등과 같은 첨사를 통해서도 전달 의미를 부드럽게 하려는 화자의 노력을 살펴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감탄사에 붙는 '게'의 언어적 본질에 대해 고재환(2011:58)은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망설이거나 놀라움을 나타낼 때 말머리에 오는 감탄사에 붙는다”고 하였다.

살펴본 것처럼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 '게'가 강제첨사로 사용된다는 것은 곧 '게'의 언어적 기능이 담화, 기능적 해석과 밀접함을 암시한다. 담화, 기능적 해석이란 명제적 의미 이외로 담화 참여자가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언어 외적인 요인을 의미한다. 언어 외적인 해석과 판단은 주어진 상황, 맥락에서 결정되는 화용적 의미와 연관되는데, 본 연구에서 가정하는 '게'의 언어적 본질은 담화, 기능적 기능과 서로 통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순덕(2005)의 연구는 제주어 '게'의 첨사적 쓰임 중 간투어로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주의 간투어 표현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²⁾, 질문에 대한

2) 문순덕(2005:162)은 간투사를 감탄사와 비교, 구분하고 있다. 감탄사는 “놀람, 기쁨 등 감정을 표현 한 것”이고, 간투사는 “정감 표현과 관계없이 부름, 응답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응답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게’의 침사적 쓰임을 ‘응’과 ‘기’와 비교하여 ‘게’의 언어적 본질을 살펴보았다. 이전 연구와 달리 담화 자료를 활용하여 ‘게’의 특징을 살펴보고 있다.

- (6) 가. 지금 점심시간 아니?
 나. 게. (점심시간)
 다. 기. (점심시간)
 라. 응. (점심시간)

(문순덕 2005:176)

- (7) 가. 이디서 뭐 햐수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 응/으(->). 뭐 안햐저.
 (응. 뭐 안고 있다.)
 다. 예(->). 뭐 안햐수다.
 (예. 뭐 안고 있습니다.)
 라. *게/*기. 뭐 안햐저.

(문순덕 2005:177)

(6)와 (7)의 예를 통해 문순덕(2005:176-178)은 ‘게’는 화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될 때 발화되어 ‘단정, 확신, 강조, 사실’의 담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설명한다. (7ㄷ)이 비문법적인 것은 단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가 설명 의문문의 응답으로는 발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처럼 의사소통 과정에 ‘게’는 화자가 자신의 의견을 단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되고 있다. 이는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게’의 기본 의미인 상호작용을 위한 체면 유지 기능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3. 연구의 자료

구어적 특징을 지니고 있는 제주어는 일관성 있는 문자 체계를 갖지 못하였다. 문자 체계가 없기 때문에 제주어는 문어적으로 정리되어 전승되는 자료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자료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전통적으로 제주어의 언어적 특징을 밝혀내기 위해 연구자들은 음성, 단어 혹은 문장 단위의 인위적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여 왔다. 그리고 이들 자료의 문법성 혹은 언어적 타당성은 주로 연구자 직관에 의존하여 왔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게'의 상호 작용적 언어 기능과 담화적 쓰임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게'의 의미적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 화자와 청자의 상호 작용에 바탕을 둔 구어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기초 연구의 성격을 띠고 있는 본 연구의 진행을 위해 두 유형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하나는 요즘 제주어 활용을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연구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녹취한 실제 자료이다. 전자는 이미 책자로 편집되어 있어 필요한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며, 후자는 실제 사용되는 자료로 실제 의사소통에서 그 활용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자의 자료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자들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자는 제주도 등에서 주관하는 제주말 말하기 대회 등에 출품된 작품을 모아 놓은 자료집 활용이다³⁾.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38회, 47회에 출품 작품 등을 모아 놓은 것이다. 말하기 대회에 출품한 작품들은 다수 참가자들의 역할극으로 구성되었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활발한 상호 작용을 전개한다.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한 이들은 제주어의 언어적 본질을 충분히 반영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연구자들이 직접 언어 현장에서 녹음하고 전사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한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제주어의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특정 어휘, 예를 들어 가축, 농업 등에 대한 자료 채록을 위해 제주 전역을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이들 지역의 마을회관(노인회관)을 방문하였다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대화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주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여 연구자들의 간접

3) 제주어말하기 대회는 제주도가 주최하는 탐라문화제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 초중고와 일반인들이 45명 정도가 한 팀을 이루어 제주어로 이루어진 역할극을 시현한다. 제주어로 만들어진 역할극 대부분은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4) 채록은 연구자 2인이 각 지역의 마을 회관 혹은 이장님이 추천한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이야기 대상자들은 제주어와 제주의 생활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살아오신 주로 7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다. 사전 약속을 하여 방문하였으며 의사소통은 어르신들과 단독 혹은 여러 사람의 대화자가 함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을 최소화 하였다. 실제 사용되는 제주어를 그대로 담아낸 자료로서 실제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게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4. ‘게’의 담화 기능에 대한 고찰

앞서 2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전 연구는 ‘게’의 구조적 속성과 의미적 본질을 확인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게’에 대한 언어적 기초 정보, 즉 종결어미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에서 침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명제적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 구조에 아무런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언어 외적 의미 전달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정리하자면 구조적으로 종결어미로 사용되지만 화자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권유하는 청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침사로서 구조적 독립성, 명제적 의미의 결여, 다양한 언어적 환경에서 사용되는 것 등은 ‘게’의 담화, 기능적 특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담화 특성 고찰을 위해 다음 4.1에서는 기존에 종결어미와 침사로 나누어진 ‘게’의 두 가지 기능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 의미를 전제할 것이다. 기본 의미에 대한 전제는 ‘게’의 다양한 언어적 쓰임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제공해 줄 것이며, 담화, 기능적 기능을 이해하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다. 4.2에서는 침사로 명명된 ‘게’의 쓰임을 담화표시어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게’의 담화, 기능적 쓰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계속해서, 4.3에서는 실자료를 통해 담화표시어 ‘게’가 어떠한 언어적 쓰임과 기능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게’의 쓰임은 근본적으로 ‘게’의 내재적 기본 의미에 바탕 두고 있으며, 다양한 활용은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게’의 다양한 담화, 기능적 기능에 연결되고 있음을 살펴 보고자 한다.

4.1. ‘게’의 기본 의미⁵⁾

5) 전통적인 의미 연구에서 기본적 의미와 파생적 의미로 나누어 효과적으로 의미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였다. 다음은 최규일(1985:298)에서 제안용된 의미 유형이다.

가. 어문학 연구회 (1969:165-171)의 의미 유형

구조적으로 '게'의 언어적 쓰임은 이원적, 즉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정리할 수 있다. 종결어미로서 '게'는 청유의 의미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비종결어미, 즉 첨사로서 사용되는 '게'는 담화 맥락에서 다양한 언어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양립된 쓰임을 보이고 있는 '게'의 의미적 속성은 어떠한가? 통사적 제약의 영향으로 의미적으로도 이원적 해석이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면 통합적 기본 의미로 '게'의 구조적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게'의 의미적 본질은 내재적으로 통합적 기본 의미(core meaning)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 의미는 '게'의 중심 의미로 어떤 사용 환경에서도 심층에 내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게'가 서로 다른 언어 환경에서 사용될 때, 해당 담화에서 '게'는 기본 의미를 전제로 하고 상황 맥락을 고려한 담화 의미를 파생시킨다. 이렇게 파생된 의미에 근거하여 '게'는 담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기본 의미는 다양한 의미 자질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의미를 총칭하는 것이 있다. 추론적 파생 의미는 실제 언어 사용 환경에서 언어 사용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해석되는 화용적 의미를 총칭한다⁶⁾.

기본적 의미(fundamental meaning): 주의, 중심의미
 문맥적 의미(contextual meaning): 부의, 주변 의미
 정서적 의미(emotional meaning): 연상적, 주변적 의미

나. 심재기 외 2인 (1984:19-24)의 의미 유형

중심 의미 (conceptual meaning)
 개념적 의미 (denotive meaning)
 인식적 의미 (cognitive meaning)
 연상 의미 (associative meaning)
 의도적 의미 (intended meaning)

- 6) 예를 들어, 이봉선(1998:3)은 담화표시어 '거시기'의 담화적 기능 설명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다.

'거시기'는 그것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구체적인 담화 기능을 가진다. 이들 구체적인 의미들은 서로 독립성을 지니고 있어 그들 간의 아무런 의미적 연결 관계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담화표시어는 담화 상에서 아무리 많은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다 할지라도 단 하나의 기본 의미(core meaning)를 가지고 있고, 구체적인 의미들은 이 기본의미로부터 담화적으로 추론되는 함축 의미로 본다. 즉, 담화표지 '거시기'의 기본 의미는 '화자가 하려는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그 말을 끌어내기 위해 사용된 것'이면서 담화 상에서 담화적 기능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는 ‘게’의 기본 의미를 ‘담화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과의 거리 유지 및 체면 유지를 위한 공손의 언어 표현’으로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는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사용되는 ‘게’의 쓰임에 대한 통합적 설명이 가능하게 한다. 우선, 종결어미 ‘게’는 청유형 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청유형이란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권유하여 상대방의 협조를 얻어 내는 것’이라 점에서 기본 의미와 상통할 수 있다. 상대방과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상대방의 협조를 얻기는 수월해 진다. 다음 예문 (8)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자.

(8) (날씨가 흐린 상황에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 ㄱ. 혼자 집이 가게 / 혼자 집이 ㄴ치 가게
 ㄴ. 혼자 집이 가라 / *혼자 집이 ㄴ치 가라

위의 비가 와서 서둘러 집에 가야 할 상황에서 두 친구 사이에 일어나는 발화이다. (8ㄱ)의 경우는 청유형 어미 ‘-게’를 사용하고 있고, (8ㄴ)의 경우는 ‘-라’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의미 속성 상 ‘ㄴ치(같이)’라는 표현은 ‘-게’ 어미와만 가능하고 ‘-라’와는 어울리지 못한다. 상호작용적 부사 ‘ㄴ치’와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은 곧 ‘-게’의 통사적 속성에 화자가 청자에 대하여 가지는 의도나 태도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종결어미로 사용되는 ‘-게’ 속에 내포된 기본 의미는 언어적 정보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청자의 반응을 기대하는 즉, 대인 관계 유지 기능을 위한 메타인지적 체면 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⁷⁾

4.2. 담화표시어 ‘게’

담화표시어는 담화의 원활한 흐름에 관여하는 언어 신호체이다. 문맥의 일관성 유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서 원만한 상호 작용에 직접적으로 기

7) 김지홍(2001:21-22)도 ‘게’와 ‘기’의 비교 설명에서 “‘게’는 청자에게 화자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통보하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만, ‘기’는 다만 화자의 믿음만을 소극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갖고 있는 듯하다. 대립적으로 표현하면 ‘게’는 [+믿음을 통보함, +청자 반응 야기]로 볼 수 있지만, ‘기’는 [+믿음만을 보여 줌, -청자 반응 야기] 정도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부탁에서 상대방을 고려하는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 진행을 위한 선결 조건이 된다.

여한다.(Brinton 1996, Yang 2010) 이들은 담화의 명제적 의미 전달에는 큰 역할을 하지 않지만 명제적 의미 전달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해 주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이들이 군말, 부가어, 담화 불변화사, 화용표지 등으로 불린 이유도 의미론적 차원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⁸⁾. 의미적 차원에서 담화표시어는 첫째, 발화의 진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둘째, 발화의 명제적 의미와 관련이 없으며, 셋째, 지시적인 의미보다는 감정적 표현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 기재로 정의된다.(Jucker and Ziv 1998)

담화표시어는 구조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기능어와는 달리 주어진 문맥 상황의 이해를 도와주는 언어 표현들이다. 특히 담화 참여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화용적 의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담화표시어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그 언어적 역할과 쓰임이 결정된다. 우선 담화표시어는 주로 구어 담화에서 발견되는데, 운율적으로 억양, 휴지와 관련이 있고, 형태적으로는 독립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다. 통사적으로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며 의미적으로 명제적 의미 전달과 무관하다. 담화 상에서 담화표시어의 사용은 담화의 응집성을 강화시켜주는 역할과 담화 참여자들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끌어준다. 이러한 담화표시어의 특성을 바탕으로 '게'의 언어적 성격을 고찰해 보자.

첫째, 담화 상에서 실현되는 표시어다.

담화표시어의 해석은 담화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맥락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담화 맥락을 배제하면 담화표시어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게'의 쓰임과 해석은 담화 맥락에서 그 기능을 발휘함을 알 수 있다.

(9) ㄱ. 화자: 어느 걸로 먹을디?

청자: 아무거나 먹켜게

8) 임규홍(1996:3)은 담화 표시가 담화상의 상위 범주에 해당하고, 그 하위 범주로 다음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있다.

- 기능 중심: 디답말, 담화 개시어, 관심획득표지
- 형태 중심: (담화) 불변화사, 간투사(환투사)
- 환경 중심: 담화(화용) 표지
- 현상 중심: 군말, 입버릇, 머뭇거림, 덧말

화자: 어느 것을 먹겠나?
청자: 아무거나 먹겠다

ㄴ. 비 왔시네. 얼른 들어가게.
(비가 오고 있네, 빨리 들어가자)

(제주말 말하기 대회 47)

예문 (9)에서 ‘게’를 따로 떼어 놓으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는 힘들다. (9ㄱ)의 경우 화자가의 질문에 청자는 아무거나 먹겠다는 명제적 의미에 ‘게’가 추가되고 있다. 추가된 ‘게’가 의도하는 바는 ‘내 것은 신경 쓰지 마’ 정도의 추론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9ㄴ)에서 사용된 ‘게’는 청유형 종결 어미로 공손하게 권유를 재촉하는 정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게’는 독자적으로 사용될 수 없고 담화 환경에서만 추론적 의미 해석을 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운율적으로 리듬이 반영된다.

담화표시어의 운율적으로 상승, 혹은 하강의 리듬을 동반한다. 아울러 담화표시어 뒤에 휴지를 유지하여 담화표시어의 존재감을 부각시킨다. 고미숙(2005)은 제주어의 억양 패턴 연구에서 청유형 종결어미 ‘게’가 다양한 리듬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제주방언 청유문에서는 이렇게 다른 문장유형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복잡한 형태의 억양패턴이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미숙 2005:13) 이 이유에 대해 그는 청유문이 부탁이나 권유의 어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하나의 언어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억양의 패턴을 보인 것은 ‘게’의 언어적 본질이 의미적 역할에 있다기보다는 맥락을 고려한 화용적 쓰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셋째, 형태적으로 고정되고 통사적 역할이 결여되어 있다.

담화표시어는 고정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는데, 이는 곧 담화표시어가 활용되거나 조사가 결합되는 경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통사 구조에서 분명한 문법적인 역할이 없거나 그 기능이 미약하다. 다른 문장 성분에 독립적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여도 문장의 의미 구조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ㄱ. 그 정돈 나안티도 잇다게 (동사 + 게)
- ㄴ. 아이고게, 경 돼어불언? (감탄사 + 게)
- ㄷ. 아직은 나이가 너무 어리다게 (형용사 + 게)
- ㄹ. 나가 가민 가이도 가카게(의문형 + 게)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게’가 사용되는 언어 환경은 다양하다. 하지만,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도 ‘게’의 형태적 쓰임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게’의 존재 유무가 통사적 유형이나 명제적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넷째,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한다.

담화표시어는 그 의미적 실체가 약화되거나, 상실되어 발화나 담화의 명제적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대신에 맥락에 의존하여 담화 참여자의 심리적 태도, 발화 의도 등을 암시하는 화용적 의미에 관여한다. 앞서 ‘게’의 내재적 기본 의미는 담화 참여자들의 공손 유지를 위한 심리적 상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전제가 가능한 것도 ‘게’의 담화적 성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게’가 갖고 있는 내재적 특질로 인해 ‘게’는 다양한 언어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다양한 담화 해석과 기능이 가능하다.

4.3. ‘게’의 담화 기능

여기서는 본 연구에서 담화표시어로 제안된 ‘게’의 담화적 쓰임과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3.1. 발화 행위 지지

맞장구는 어떠한 요청에 대해 대화를 원활히 진행해 나가기 위해 수행하는 대화 전략이다.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발화를 잘 듣고 있는지 또는 발화 행위를 계속해도 되는지에 대해 확인을 받고자 하며, 또한 이런 경우 대화 지속을 위해서는 청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대화는 화자의 발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화자와 청자의 상호 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자가 보이는 맞장구는 화자의 체면을 살리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⁹⁾. 아래의 대화에서 ‘게’는 발화 행위 지지를 위한 맞장구로 사용되고 있다.

(11)

화자: 날씨 좋주기
 청자: 개개, 봄 날씨 치고 너무 좋다
 화자: 집이 이서 지크나. 나가사주

화자: 날씨 좋지, 그렇지
 청자: 그럼요. 봄 날씨 치고는 너무 좋은데요.
 화자: 집에 있기에는 아깝다. 나가야지.

(연구자 인터뷰, 제주도)

위의 대화에서 ‘개’는 대화의 맞장구 기능을 수행한다. ‘개’가 두 번 연속 사용되는 것은 ‘개’의 의미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날씨가 좋지 않으나는 질문에 청자는 맞장구 표현 ‘개’를 사용하여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발화에 대한 동의로 맞장구를 쳐주면 이는 곧 발화 지지를 암시하여 상대방이 부담감 없이 대화를 계속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된다.

4.3.2. 담화 지속 표시어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의 원활한 주고, 받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원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대화 참여자들은 각자의 차례를 적절히 인식하여 대화를 진행해야 한다. 담화 분석에서 대화 참가자 각자의 말하는 순서와 언어적 단위를 차례(turn)라 부른다. 담화에서 담화의 진속을 위한 차례의 암시는 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다¹⁰⁾. 담화에서 원활한 상호작용과 일관성 있는 담화 전개를 위해 차례를 인식하고 이에 협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12)

- 9) 맞장구가 수행하는 동의 기능은 Leech(1983)에서 말한 공손의 원칙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맞장구의 동의 기능은 Leech(1983)가 제시한 격률 가운데 ‘동의를 격률’에 해당하는 것으로 맞장구를 수행함으로써 청자는 화자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김순자 1999:53)
- 10) Duncan(1974)는 모든 상호작용에는 화자와 청자 서로가 그들의 차례를 알리기 위한 신호체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례를 알리는 신호는 억양(상승조 혹은 하강조); 느린 말투; 몸의 움직임(손 동작 끝내기, 긴장된 손위치가 편안하게 되는 것); 환경적 연결체(or something, you know, but uh 등과 같은 고정적 표현); 준언어적 표현(하강 고저, 강도); 통사론(완전한 문법적 단위)

질문자: 게난 그 때는 먹을 게 어섯구나 양?

응답자: 무사 아니라게. 먹을 게 귀해노난, 스시스철 먹을 게 걱정했주게. 정
말 어떻게 살아 신지 모르크라.

질문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없었군요, 그렇죠?

응답자: 정말 그렇죠. 먹을 것이 귀하니까 일 년 내내 먹을 것을 걱정했어
요.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자 인터뷰, 안덕면)

(12)의 대화에서 먹을 것이 귀했다는 질문자의 말에 응답자는 우선 ‘무사 아니라’(정말 그렇죠)와 같은 긍정의 덧붙임로 맞장구를 치고 있다. 맞장구에 이어서 질문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이 부연하고자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싶어 한다. ‘무사 아니라’라는 맞장구는 단순하고 단정적인 반응으로 더 이상 담화를 지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에 화자는 주도권을 유지하고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수단으로 ‘게’를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손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게’의 사용은 암시적으로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면서 담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 것이다. ‘게’가 계속 이어지는(~아니라게 ~ 걱정했주게) 것 또한 ‘게’가 이야기의 주도권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장치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 할 수 있다.

4.3.3. 공감 표시: 확인 및 동조

(13)

개똥이 어멍: 우리 커울 때 ㄱ찌 예닐곱개씩 나그네, 먹을 거 낱 ㄷ투곡, 입
을 거 노양 ㄷ 투곡 ㅎ멍 등글리멍 키와사 놈 예러운 것도 알
곡 수누르멍 사는 것도 알주게.

맹순이 어멍: 게메 말이주게. 이녀네 즈식만 즈식이엔 ㅎ민 안되여마썸.

개똥이 어멍: 우리가 자랄 때처럼 (자식이) 예닐곱개씩 되면 먹을 것을 다
투고, 입을 것도 다투고. 그렇게 하면서 어렵게 키워야 남의
어려운 것도 알고, 서로 도와가 면서 사는 것도 알지요. 그렇
죠?

맹순이 어멍: 그러게 말이예요./그렇구 말구요. 자기 자식만 자식이라고 하
면 안 돼는 거예요.

(제주말 말하기 대회 38:22)

위 예는 자기 자식에게만 너무 애정을 주는 부모를 좀 나무라는 의도에서 진행되는 대화의 한 대목이다. 첫 번째 화자(개똥이 어멍)는 이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식들이 서로 돕고 이해하면서 잘 자랐다고 전제하면서 그렇지 않느냐고 자신의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 단정을 의미하는 종결어미 '-주'로 말을 맺으면서 확인을 위해 '게'를 사용하고 있다. 즉 '게'는 확인을 나타내는 부가의문문처럼 사용되고 있는데, 하강 성조와 청자가 그렇다고 확인해 주는 반응을 통해 '게'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화자(맹순이 어멍)의 확인 응답도 '게'로 끝나고 있는데, 이는 앞선 화자의 언급에 완전한 동의, 즉 의견 공감을 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4) (70대 할머니 대화)

화자: 가의가 그걸 벌써 다 헤시키?

청자: 그것사 다 헤실테주게

화자: 그 애가 그걸 벌써 다 했을까?

청자: 그거야 다 했겠지

(연구자 인터뷰 자료, 성산읍)

화자의 약간 의심스런 내용의 질문에 대한 응답의 끝에 '게'가 사용되고 있다. 미래 확신과 추측을 나타내는 '-르테주'로 대답을 맺음으로써 응답에 '게'를 사용하지 않고도 의미적으로 충분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명제적 의미에 덧붙여진 '게'의 쓰임은 화용적 의미 해석과 연결되어진다. 추론 가능한 담화적 의미는 '(그 애의 능력이나 여건을 감안하면) 당연하게 다 했어야지'라는 의미 화자의 의견에 공감을 나타내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5. 맺음말

전통적으로 '게'는 종결어미와 침사의 이원적 통사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가정은 표면적으로 서로 다른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게'의 언어적 쓰임에 통합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양립되어 있지만, 의미를 포함하는 담화 기능적 측면에서 일원화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게'가 함의하는 내재적 기본 의미를 '담화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상대방과의 거리 유지 및 체면 유지를 위한 공손의 언어 표현'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의미는 청유형 종결어미의 쓰임에 대한 의미적 전제를 만족시키고 있다. 청유형은 화자가 청자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요구하는 통사적 형태로 청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요구를 위해 대인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어형태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게'가 활용되는 것이다.

계속해서 '게'의 다양한 담화, 기능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게'는 담화적 환경에서 실현되는 담화표시어임을 살펴보았다. 담화표시어로서 '게'는 담화에서 실현되는 명제적 의미가 배제된 상호작용 표시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그 기저에는 공손유지를 위한 '게'의 기본 의미가 내재하고 있음을 가정할 때 설명이 훨씬 용이하다.

마지막으로 공손 유지의 기본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를 중심으로 '게' 담화 기능의 실례를 살펴보았다. 기본 의미에 근거하여 파생되는 '발화 행위 지지,' '담화 이어가기,' 그리고 '공감 표시' 등의 의미를 통해 담화표시어 '게'의 담화 기능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담화 맥락적 상황에서만 가능한 의미로 원활한 상호작용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는 곧 적당한 공손 유지 기능을 기본 의미로 상정할 때 파생 가능한 담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근보 (1972) 제주방언 어휘고. 『국문학보』 4: 11-28.
- 강근보 · 현평효 · 김홍식 (1974) 제주도 방언의 활용어미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6: 15-48.
- 강영봉 (1995) 제주도방언의 어휘론적 연구. 『탐라문화』 15: 183-201
- 강정희 (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역락.
- 강정희 (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학교출판부.
- 고미숙 (2005) 제주방언의 억양구 경계성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34: 1-16.
- 고재환 (2011) 『제주어 개론(상, 하)』 보고서.
- 김순자 (1999) 대화의 맞장구 수행 형식과 기능. 『텍스트언어학』 6: 45- 69.
- 김지홍 (2001) 제주방언 대우법 연구의 몇 가지 문제. 『백록어문』 17: 7-35.
- 문순덕 (2003) 『제주방언 문법연구』 세림.
- 문순덕 (2005) 제주 방언의 간투 표현. 『한글』 269: 161-188.
- 성낙수 (1992)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계명출판사.
- 임규홍 (1996) 국어 담화표지 ‘인자’에 대한 연구. 『담화와 인지』 2: 1-20.
- 이기문 (1993) 제주방언과 국어사 연구. 『탐라문화』 13: 145-154.
- 이봉선 (1998) 국어 담화표지 ‘거시기’의 의미 분석. 『현대문법연구』 13(1): 197-212.
- 최규일 (1985) 현대국어 ‘것’의 연구: ‘것’의 의미기능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51(1): 297-319.
- 현평효 (1985) 『제주도 방언 연구』 태학사.
- 홍종립 (1991) “제주 방언의 양태와 상범주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Brinton, L. (1996) *Pragmatic Markers in English: Grammaticalization and Discourse Functions*, Berlin: Mouton de Gruyter.
- Duncan, S. (1974) On the structure of speaker-auditor interaction during speaking turn. *Language in Society* 2: 161-180.
- Leech, G. (1983) *Pragmatics*. Longman.
- Juncker, A. and Y. Ziv (1998) *Discourse Markers: Description and Theory*. Benjamins.

- Olshtain, E. and M. Celce-Murcia (2001) *Discourse and Context in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avignon, S. (1997) *Communicative Competence: Theory and Classroom Practice*. McGraw-Hill Humanities.
- Yang, C. Y. (2010) The Discourse Functions of *yang* in Jeju Dialect: Its Multifunctionality. *Journal of Studies in Language* 25(2): 261-280.

<사전류>

『제주어 사전』 (2009) 제주특별자치도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인터넷 홈페이지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검색일: 2013년 3월 5일)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영어교육과

E-mail: chejuycy@jejunu.ac.kr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E-mail: kimwonbo@jejunu.ac.kr

논문접수: 2013년 3월 31일

수정완료: 2013년 5월 22일

게재확정: 2013년 5월 25일

к с і